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건국사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직맹단체들의 투쟁

황 영 일

새 조국건설시기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직업동맹앞에는 인민정권을 옹호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뿐아니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건국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23일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현계단에 있어서의 직업동맹의 기본임무》에서 직맹단체들이 당과 인민정권이 내놓은 정책관철에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맹단체들은 당과 인민정권이 내놓은 정책관철에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464페이지)

직맹단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부흥발전시키기 위한 건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직맹단체들은 무엇보다 먼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토지개혁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고 모든 력량을 토지개혁수행에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새 조국건설시기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토지개혁을 하여야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으며 농민대중을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해방하고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현실은 지체없이 토지개혁을 실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직맹단체들은 로동자들로 조직된 토지개혁지원대를 농촌에 파견하여 토지개혁을 위한 농촌위원회사업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시에서는 1 150여명의 우수한 로동자들을 평원, 안주, 중화, 순천, 대동 등 평안남도의 여러 군에 파견하였으며 함경북도의 직맹단체들에서는 105개의 토지개혁지원대를 조직하여 14개의 시, 군들에 파견하였다.

직맹단체들은 로동자들로 선전대를 무어 농민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농촌에 파견된 로동자들은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농민대중속에 토지개혁의 의의와 그 수행방도들을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이 사업에 농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사리원과 황주, 재령과 안악 등 농촌지역에 나간 황해제철소 노동자들은 농촌위원회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한편 토지개혁선전대와 함께 농민대중속에 들어가 토지개혁과 관련한 정치선전을 진행하여 황주군에서만도 126회에 걸친 강연에 연 1만 2 199명의 농민들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직맹조직들은 농촌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토지개혁을 반대하여나선 지주와 반동들의 음모책동들을 폭로분쇄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지주를 비롯한 계급적원썬들은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과 농촌위원회 위원들을 살해하는 등 최후발악을 하였다.

농촌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보안기관과 농촌에 조직된 자위대와 힘을 합쳐 반동세력을 진압하는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함으로써 토지개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직맹조직들은 노동자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토지개혁을 적극 방조하도록 하였을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평안북도 룡등탄광의 3 000여명의 노동자들은 회의를 열고 농민들을 지원할것을 결의한 다음 석탄생산을 늘이면서 집단적으로 농민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냈으며 호미와 낫을 비롯한 소농기구들을 만들어 농민들을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평안북도안의 503개의 단위의 노동자들은 농민들에게 농기구를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토지개혁생산돌격을 벌리였으며 4 200여개의 보습과 2 500대의 제초기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보내주었다.

홍남비료공장(당시)의 직맹조직들에서도 농촌에 비료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봄씨름임에 필요한 화학비료를 제때에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직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을 토지개혁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2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토지개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직맹단체들은 다음으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새 조국건설을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경제적기초를 청산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없었다.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여야 로동계급을 나라의 주인으로,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분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크게 고무추동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1 034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소유로 되였으며 국영기업소들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직업동맹은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투쟁을 산업시설의 복구와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였으며 그를 위한 투쟁으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직맹조직들은 노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공장, 기업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들이 공장관리운영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파괴된 생산시설을 시급히 복구하여 조업하며 노동규율을 강화하고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나라의 주인이 된 노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주체35(1946)년에 벌써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822개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고 파괴된 199대의 기관차가 수리정비되었다.

직맹조직들은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투쟁을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자질을 높이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밀고나갔다.

노동자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함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공장관리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었다.

직맹조직들은 각 공장, 기업소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체계를 세우고 이를 직접 틀어쥐고 운영해나갔다.

각급 지방조직들은 성인학교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기능전습반, 기술학습반 등에 망라시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직맹단체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는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직맹단체들은 다음으로 노동계급들속에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파괴된 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 증산경쟁운동을 발기하시였다.

광범한 노동자대중속에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파괴된 경제를 부흥발전시키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증산경쟁운동은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집단적혁신운동으로서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고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직맹조직들은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정비복구하고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렸다.

직맹조직들은 노동자들속에서 복구돌격운동과 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일체가 1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인 전기로를 불과 몇달사이에 복구하여 쇠물을 뽑기 시작하였다.

부령야금공장 노동자들은 1 000kW짜리 전기로를 자체로 복구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고무산세멘트공장 노동자들은 일체가 패주하면서 로를 파괴하려고 장치한 폭발물을 해제한 다음 로에 불을 지피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직맹조직들은 노동자들속에서 노동영웅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홍남비료공장 노동자들은 쫓겨모임을 가지고 하루빨리 공장을 정비복구하여 비료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노동영웅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결의다지였다.

이곳 노동자들은 작업반사이에 경쟁을 조직하여 일제가 파괴한 설비들을 복구하고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정비복구하였으며 주체35(1946)년에 12만8 500t의 비료를 생산할수 있었다.

발전소와 변전소들을 복구하는데서 걸린 기술적문제와 자재문제를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이 중단없이 보장되었으며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이 복구되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한편 사동, 안주 등 전국의 탄광노동자들은 수많은 식량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쫓겨모임을 가지고 석탄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황철의 노동계급은 일제가 10년이 걸려도 복구할수 없다고 하던 1호평로를 짧은 기간에 정비복구하고 첫 쇠물을 뽑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직맹조직들은 중요명절과 기념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속에서 대중적인 증산경쟁운동을 조직진행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주체35(1946)년도에 3.1운동기념 증산경쟁, 5.1절기념 증산경쟁, 8.15 해방증산경쟁, 연말증산경쟁 등을 힘있게 벌리었다.

주체35(1946)년도 연말증산경쟁에만도 평안남도에서는 149개의 공장, 기업소에서 6만2 52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으며 평안북도에서는 102개의 공장과 17개의 광산에서 1만5 771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철도노동자직업동맹에서는 종업원대회를 열고 3.1운동 27돐을 계기로 증산경쟁운동을 벌릴것을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철도부문의 직맹조직들은 철도를 하루빨리 복구하여 나라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철도를 완전히 복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직업동맹은 주체36(1947)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완수하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업과 운수부문앞에 나선 파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직맹조직들이 주체37(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한달 앞당겨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한 결과 이해 상반년도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3 08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79만여명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증산경쟁운동에 참가하였다.

직업동맹은 노동계급이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경쟁과 함께 작업반과 작업반사이, 공장들호상간에 경쟁을 조직함으로써 주체38(1949)년도 공업생산액을 102.8%로 넘쳐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직맹단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건국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